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할부로 사지'라는 어느 캐피탈 회사의 광고처럼 자동차를 구입할 때 카드사나 캐피탈 회사의 할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일에는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여행을 해야 하는 오늘날의 라이프사이클상에서 자동차는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문명의 이기일지도 모른다. 그 덕에 자동차가 없는 남자의 경우 애인 사귀기가 만만치 않다는 우스개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경제생활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적절한 소비를 하는 것이 행복의 한 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자산 현황과 현금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선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 이용보다 '목돈구입' 유리

자산규모·현금 흐름에 맞는 소비 방법이 현명한 습관

를 구입하는 상당수가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규모의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자산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동차 할부 비용·유류비·보험료·세금·소모품·정비 비용 등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 2천500만원의 신차를 선택 1천만원, 3년 원리금 할부 1천500만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할부금만 46만7천원에 달하며, 유류비 20만원,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자동차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

이 월 70~80만원에 달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할부와 관련해 취급 수수료 할부금액의 3%,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자동차 세금 등을 감안한다면 월 고정비용을 제외한 400만원 정도의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매년 15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3년 후에는 2천500만원이던 차량 가격이 40% 정도는 감가 상각돼 시세가 1천500만원 정도에 그칠 것이다. 만약 3년전에 자동차를 사지 않고, 자동차에 들어갔던 비용을 투자했다

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매월 80만원을 8% 수익률의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선행에 따른 기회비용 1천만원과 매년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투자했다면 3년 후에 5천만원이라는 자금을 적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자동차의 잔존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3천500만원의 자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동차를 빚을 내서 구입했을 경우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지 자각해 보라는 말이다. 자동차

와 같이 고가의 사치재를 구입할 때에는 할부를 이용하기보다 매월 일정액을 투자해서 목돈을 모아 일시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3년간 매월 30만원을 자동차 구입을 위해 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3년 후 수익이 잘 나서 1천300만원이 되었다면 이에 맞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될 것이고,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아 1천만원이 적립돼 있다면 이에 맞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자산규모와 현금흐름에 맞는 소비방법이며,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없애지 않는 현명한 습관이다. (TNV어티브이XFFP팀장)

자동차 구입으로 본 투자기회 비용

증권사 채용문 '활짝'

하반기 11개사 1,022명 모집

사상 최대의 증시호황을 맞아 '이직잔치'를 벌이고 있는 증권사들이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들어갔다.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덩치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들은 '풍부한 실탄'을 기반으로 작년 대비 평균 2배 이상 많은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다. 6일 연합뉴스가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공채 규모를 결정한 11개 증권사의 채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총 1천222명으로 작년 하반기 477명에 비해 114%나 늘었다. 조사대상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동양증권, 키움증권, 한화증권, 대우증권, 미래셋증권, 동부증권, SK증권, 현대증권, CJ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이다. 주식시장의 호황을 맞아 일선 지점의 영업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데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자산관리 및 투자은행(IB) 부문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대거 수혈할 필요가 있어 증권사별로 경쟁적으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동양증권과 SK증권, 키움증권 등이 지난 3월 1일 원서접수에 들어가면서 증권사의 하반기 채용시즌이 본격 개막됐다. 동양증권은 자산관리영업 강화를 위해 작년 대비 무려 5배나 늘어난 250명 규모의 대졸신입사원 공채에 들어갔다. 미래셋증권과 한화증권, 동부증권은 10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미래셋증권은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많은 150명을 뽑을 예정이며 한화증권과 동부증권도 각각 80명과 30명의 신입사원을 맞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운용 곧 완전독립"

지배구조 개선 논의중... 운용위장 총리가 추천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밝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포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가 통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구조와 마찬가지로"면서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가 아닌 기금운용공사로부터 실무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추천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논의의 결과가 곧 발표된다"고 전했다. 장 장관은 포럼 강연에서는 "지출산고령화 문제가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지출산 고령화가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출은 많아지고 세입기반은 감소한다"면서 "노동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재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에서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마이너스 대출 5년만에 최대 증가

학자금 수요·카드대금 결제 8월 한달 증가액 2조8,000억

부동산시장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의 여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학자금 수요와 카드대금 결제수요 등이 집중되면서 지난달 가계의 마이너스대출 대출 증가액이 약 5년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3천873억원으로 올해 최대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천969억원으로 전월(1천439억원 증가)보다 늘기는 했으나 지난해 2~3조원씩 급증하던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둔화된 상태. 이와 달리 마이너스대출 대출은 2조8천억원이 증가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지난달 마이너스대출 대출 증가액은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내수거품이 절정

에 달했던 2002년 10월의 3조3천억원 이후 58개월만에 최대에 해당한다. 이처럼 마이너스대출 대출이 급증한 것은 2학기 학자금 수요와 함께 여름휴가철에 지출한 카드대금 결제 등 계절적 요인이 가세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계속되자 일부 가계에서 급리가 훨씬 높은 마이너스대출 대출을 통해서라도 주택자금을 조달하려는 '홍선효과'도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월중 중소기업대출은 4조3천686억원이 증가해 7월(3조1천399억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컸으나 7~8조씩 급증하던 상반기에 비해서는 진정된 편이다. 대기업 대출은 4천95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여전히 부진했다. 한편 7월에 8조3천220억원이 감소했던 은행 수신은 8월에 4조3천874억원의 증가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아파트 분양가·가격동향 표시도 정수 m²로

'3.3m²당 얼마씩 표현 않기로

앞으로는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나 부동산 정보업체의 가격동향을 표시할 때도 정수 m²단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관상 m²단위를 쓰면서도 기존 '평' 개념에 기초해 쓰이는 '3.3m²당 얼마'라는 식의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다. 산업자원부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건설업체 및 부동산정보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법정 계약단위 정착을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들은 국민들의 미터법 친숙도 제고를 위해 향후 아파트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에 면적표시로 100m², 150m²와 같이 소수점 아랫자리가 없는 정수 m²단위를 쓸 계획이며 특히 롯데건설과 한진중공업 등은 앞으로 언론사 배포자료에도 단위가격을 1m²당 단가를 표기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보험회 소속사들과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 국민은행과 한국사 배부자료에도 단위가격을 1m²당 가격을 위주로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몽구 회장 執猶... 흥겨운 현대기아차號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6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뒤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조원대 '사회공헌' 이행 명령

준법경영 경제단체 강연·신문 등 기고 재판부 "여수엑스포 유치 기여해달라"

수백억원대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가 결정됨에 따라 글로벌 경영 행보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몽구 회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 해외 현장 경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현대기아차그룹은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신흥 시장에서 경쟁사의 견제 강화로 인한 판매 실적 감소 외에 기아차 조지아 공장, 현대차 체코공장, 중국 2공장, 인도 2공장 건설 등 급격한

재벌총수에 관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묵묵히 법정을 나왔다.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전 현대차 관계자들도 가득 찬 방청석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정 회장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히며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실형 선고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빠뜨리는 도박을 하기 꺼려졌다"고 언급하자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되기 시작했고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월로 예정돼 있었던 정 회장의 선고공판은 일정 취소를 거듭하다 약 두 달이 지나서야 열렸으며 재판부는

30분 가까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해 그간의 고심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약속한 사회 환원과 경제단체에서의 강연, 경제전문잡지의 기고 등을 끝자로 한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하면서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대하고 재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재판부로서) 달게 받겠다"면서 사회봉사 명령의 확대에 이번 선고의 의미가 있음을 누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정 회장이 여수 세계박람회의 명예위원장으로 위촉됐다는 것이 신문에도 많이 나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 여수박람회 유치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정 회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재판부가 퇴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정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엑스포 유치·글로벌 경영 '가속'

비자금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가 결정됨에 따라 글로벌 경영 행보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몽구 회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 해외 현장 경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현대기아차그룹은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신흥 시장에서 경쟁사의 견제 강화로 인한 판매 실적 감소 외에 기아차 조지아 공장, 현대차 체코공장, 중국 2공장, 인도 2공장 건설 등 급격한

글로벌 경영연안이 산재해있다. 정 회장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4월에 유럽을 돌며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준공, 현대차 체코공장 기공 및 터키공장 증설식에 참가했고 5월에 브라질에서 열린 현대제철 철광석 장기공급 계약식에 참가하는 등 그룹의 중대 사안을 직접 챙겨왔다. 특히 지난 7월 해외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영이 최대 고비에 있는 만큼 체질강화를 통해 해외 시장 개척에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정 회장의 행보는 이전보다 한층 바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추석 전까지는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명예유치위원장 정몽구 회장은 오는 11일 여수시로부터 명예여수시민증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여수 박람회 유치에 매진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세계박람회 명예유치위원장 자격으로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과 여수에서 열리는 '여수박람회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BIE(세계박람회 기구) 대표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 또 통째

검역원, 해당 수입물량 전량 반송

지난달 27일 검역 재계 조치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통뼈)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월23일 선적돼 부산항에서 검역 대기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8.1t(1천188상자)을 검역한 결과 1상자(13.3kg)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통뼈)가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갈비뼈가 발견된 쇠고기는 수입 검역 중단 조치(8월1일) 이전에 선적돼 지난달 5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당 쇠고기를 도착한 가금 작업장은 카길사 소유로 이미 5월 29일 갈비통뼈가 검출된 곳이다. 검역원은 8월24일 검역 중단 조치 해제시 밝힌 대로 해당 수입 물량 전량을 반송 조치하고 해당 작업장의 한국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했다. 이로써 카길사는 5개의 수출작업장 중 4곳의 승인이 취소됐다. 농림부는 최후보 검출로 지난달 1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했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해빙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은 뒤 지난달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했다. 이번 수출작업장 승인 취소는 통뼈가 다시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이 발표될 때까지 수출 선적을 중지하고, 통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또 검출되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 승인 취소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계열사 부당지원

시정명령·과징금 631억 부과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한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계열사들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물량 몰아주는 물론, 재료비 인상 명목의 지원에서부터 납품대금 결제방식 변경, 부품대금 대납, 고가의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계열사에 2천585억원 규모의 지원을 했으며 지원된 거래규모는 무려 2조9천7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현대·기아차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벌비스, 현대제철 등 5개 계열사가 현대카드와 로템 등 다른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31억5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체금 과징금 규모는 현대차가 508억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기아차는 61억5천400만원, 현대모비스 51억2천900만원, 글로벌비스 9억3천400만원, 현대제철 1억3천9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현대제철 등 4개사는 정외선 사장이 최대주주인 글로벌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1조3천637억원의 물량거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운남 하우스토리' 408세대 분양

남광토건 오늘 모델하우스 오픈

남광토건(대표 이동철)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2층 높이의 아파트 6개동이 들어서는 '운남 하우스토리' 408세대를 분양한다. 평당 규모는 215m²(65평), 161m²(48.7평), 159m²(48.1평), 120m²(36평)으로 구성되며 오는 2010년 3월 입주 예정이다. 7월 오픈하는 모델하우스는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 위치한다. 분양시 계약금 5%, 이자후불제, 발코니 무상확장, 전매가능 등 혜택이 주어진다. 분양가는 120m²(36평)의 경우 623만원/3.305124m²(1평)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